



가는 해 아쉬움 달래고 오는 해 설렘 안고

세밑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

서부는 일몰·동부는 일출 명소 많아 멀리 가지 않아도 해안·오름 곳곳에 성산일출축제·제야의 용고 타고 등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들 각 마을마다 새해맞이 준비로 분주

오후 5시 34분, 표선 오후 5시 36분, 강정·협재 오후 5시 37분, 마라도·차귀도 오후 5시 38분이다. 새해 1월 1일 첫 해돋이 시각은 표선 오전 7시 35분, 성산일출봉 오전 7시 36분, 강정 오전 7시 37분, 마라도 오전 7시 38분, 차귀도·협재 오전 7시 39분이다. 제주 서부지역은 일몰 명소로, 제주 동부지역은 일출 명소로 유명한데, 찾아가보면 좋을 제주의 해넘이·해돋이 장소를 담아본다.

▶제주 곳곳이 해넘이·해돋이 명소=제주 동부지역에 일출 명소가 많다면 제주 서부지역에는 일몰 명소가 많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해안도로에서부터 자귀내포구, 수월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제주의 대표 일몰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신창해안도로에서는 풍차가 돌아가는 노을 풍경을, 자귀내 포구에서는 차귀도 옆으로 해가 떨어지는 풍경을, 수월봉에서는 넓은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범섬, 설섬, 문섬, 새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귀포시 법환포구도 일몰 여행지로 유명하다.

성산일출봉을 비롯해 제주 동부지역은 일출 명소로 가득하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곳곳의 해안과 오름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다. 특히 김녕성계해 해변부터 월정리해변, 세화해변, 종달리 그리고 광치기 해변까지 이어지는 구좌 해맞이 해안도로는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기에 손색없는 장소다. 성산일출봉과 우도, 용눈이오름, 세화, 하도해변이 한 눈에 들어오는 지마봉 등 오름에서도 일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서 바라보는 형제섬도 일출 장관을 볼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한라산 해돋이도 명성이 자자하다. 겨울산

행이 고행이지만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최고의 장관을 연출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새해맞이 야간산행을 2년 만에 허용하면서 탐방을 위해 사전 예약한 1500명이 계묘년 첫 해돋이를 한라산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새해 희망찬 출발 알리는 행사 다양=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곳곳에서 다시 열린다.

성산일출봉에서 이달 30일부터 해를 넘겨 1월 1일까지 3일간 제30회 성산일출축제가 2년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거리 퍼레이드, 대형 달집 점화, 불꽃놀이, 새해 일출 기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일 진행되는 성산일출봉 새벽 등반은 사전 예약한 500명에 한해서만 탐방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31일 자정 제주시청 한얼의 집에서 북을 치며 새해 제주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야의 용고 타고' 행사를 연다. 서귀포시는 1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3년 만에 제24회 서귀포 겨울 바다 국제펜션 수영대회를 연다. 대표 프로그램인 겨울 바다 펜션수영 입수는 이날 낮 12시15분부터 30분간 진행되며 500여명이 바다에 뛰어들 예정이다.

각 마을에서도 새해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구좌읍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1일 오전 6시 구좌읍 하도리 동동포구) >화북동 계묘년 별도봉 새해소망 기원 일출제(1일 오전 6시 30분 화북1동 오리사당 주차장) >추자 새해 해맞이 행사(1일 오전 7시 추자면 돈대산 정상) >제지기오름 해맞이 행사(1일 오전 6시 보목포구 일원) >군산 일출제(1일 오전 6시 예래동 군산산책로 입구) 등이 마련된다.

영화觀

먼저 취하는 건 반칙이예요

올해의 마지막 대작 두 편이 국내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다. 윤제균 감독의 뮤지컬 영화 '영웅'과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3년 만에 완성시킨 속편 '아바타:물의 길'이 그 두 편이다.



영화 '영웅'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한 감독들이 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환영할 일이다. 부디 부담감을 떨쳐 버리고 그 이야기에 매혹되었던 호기심 그대로의 세계를 펼쳐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작품을 관람했다.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영웅'은 안중근과 뮤지컬 '영웅'에 대한 사전 학습이 없이는 당황스러운 작품이다.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지, 이 곡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끊임없이 전시한다. 뮤지컬의 감동과 영화의 감동은 다른 종류일 텐데 영화 '영웅'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이어진다. 역사에 기반한 드라마틱한 스토리, 절창을 뽐내는 배우들의 열연, 다양한 로케이션을 통한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예상외로 영화는 평면적이다. 공연장에서의 감각과 영화관에서서의 관람은 전혀 다른 체험이다. 하지만 엔딩의 감동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비극의 서사는 관객이 타기도 전에 출발해버린 기차처럼 느껴진다. 거기에 더해 완급 조절을 위해 심어놓은 장치들이 덜컹거리기까지 한다. 유머는 난데없고 조연들의 앙상블은 제 기능을 해내지 못한 채 부유한다. 뮤지컬 영화로서의 독창성 또한 아쉽다. '알라딘', '레미제라블' 등 유명한 히트작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뮤지컬 장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라는 타이틀에는 걸맞지 않게 느껴진다.

'아바타:물의 길'은 마치 170분 동안 펼쳐지는 기술 박람회처럼 느껴진다. 전편의 스토리를 거의 복제한 서사를 따라가는 일은 전혀 흥미롭지 않기에 세 시간이 넘는 동안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을 영화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영화를 보면서 여러 번 감탄했지만 그것은 단발마의 비명에 가까웠다. 놀랐다. 어떻게 저런 걸 구현했는지, 정말 아름답고 선명하다.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영화의 서사와는 별개의 감상이었다. 마음을 주고 따라갈 캐릭터가 없으니 내내 껄도는 느낌이었고 단조롭게 이어지는 교훈적인 서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 도대체 얼마나 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나 자꾸 시계를 보게 되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땡기듯이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13년 전을 떠올렸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보니 두 편 모두 자신이 선보이는 어떤 것에 취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는 관객과 함께 취하는 자리다. 자리를 마련한 이가 먼저 분위기에, 감정에 취해 잔을 건넨다고 흥이 오르진 않는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거대한 만찬에 초대 받은 뒤 먼저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의 어떤 순간도 나에게 추억으로 남지 않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웃기를 여했다. 조금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문 밖의 겨울은 추웠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제23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펜션 수영대회. 한라일보DB

당 축 선

이 병 철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고 광 언 외 위원 일동

당 축 선

제주시체육회장

이 병 철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제주특별자치도지원 이사)

3만 중친가족의 이름으로 영예로운 「제주시체육회장」 당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자랑스러운 전주이씨 후예로서 앞날에 더 큰 행운과 보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서단 全州李氏大同宗約院 濟州特別自治道支院長 哲憲
· 계성군파총친회장 哲憲 · 효령대군파총친회장 東翰
· 덕흥대원군파총친회장 性周 · 안양군파총친회장 相集
· 의안대군파총친회장 贊鏞 · 양원군파총친회장 萬薰
· 완중대군파총친회장 昌俊 · 화의군파총친회장 浩錫

수 축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이 성 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주지회
회원 일동